##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 "폐기물 에너지화…웰빙공간 조성"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올해 사업방향으로 광산구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도시' 추진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성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전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담부서와 평생학습부서를 신설하고, 구정 분야별 정책성공을 위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친환경 식재료 학교 공급

하남·우산동주민센터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이전하고 수완동의 분동을 추진해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전 청장은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인프라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웰빙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음식폐기물 자체 처리 시스템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모니터링으로 하남산단내 악취에 대처하고, 폐기물 관련업체 DB 구축으로 명품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불임부부 지원,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셋째 이상 아이 건강보험 무료 가입, 보육환경 개선 등 선진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기로 했다.

친환경 식재료 보급을 위해 관내 60개 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경영안전 대책비, 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의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

적 복원과 정비에 나서는 한편 만취정 등 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보수사업과 월봉서원 인근에 체험형 학습장과 생태 공원을 조성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 청장은 연산동 일원에 9홀 규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연내에 건립하고, 안청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완공과 함께 수완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KTX 역세권개발 계획에 따라 송정역을 복합문화역사로 건립하고 송정역 인근에 환승교통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남지구와 칠성지구의 재해위

### 송정역 인근에 환승시설

험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각종 재해시설의 안전 점검 및 확충을 통해 안전한 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전 청장은 "올해는 민선4기 마무리이자 새로운 도약의 해인 것을 인식하고 광산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9일 영암 F1 경주장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국비 추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남도 제공〉

# "청산도·홍도 '가고싶은 섬' 사업 뒤엎을 것"

### 전남 찾은 유인촌 장관 "접근방법 틀렸다"

완도 청산도와 신안 홍도 등 전국 4개 섬을 해양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방향이 인위적 개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바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일 완도 청산도 등을 둘러본 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섬관광자원화 컨설팅단과 간담회를 갖고 '가고싶은 섬'사업과 관련, "무슨 수를 쓰더라도 뒤엎을 생각"이라며 "섬의 특징을 살리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인데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다.

가고싶은 섬 사업은 청산도(완도), 홍도(신안)를 비롯, 외연도(충남 보령)와 매물도(경남 통영) 등 4개 섬을 해양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속가능한 섬 관광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왔다.

완도 청산도의 경우 2011년까지 국비 62억원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분까지 총 사업비 12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45억7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일주도로 꽃길조성(4억4천900만원), 야생화단지조성(8억), 도로변꽃길조성(5억5천만원), 다랭이논밭지구경관조성(4억5천만원), 해양전망쌈지공원 조성(3천700만원) 등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신안 홍도는 국비 48억원 등 모두 99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으며 야간조명, 당산복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유 장관을 비롯한 컨설팅단은 이같은 사업이 인위적인 환경 개선을 강조하면서 섬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부는 이에 따라 2월까지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수정을 거쳐 지역 고유 음식 개발이나 브랜드 이미지 창출, 문화관광해설사 및 주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완도는 45억7천만원, 신안 홍도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30%에 못 미친다"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 수정이 가능한 계획은 바꿔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이용섭 "금호 주식갖기 범시민운동 펼치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10일 금호산업 등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 '금호그룹 주식 갖기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악의 위기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330여개 사는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금호그룹이 계속해서 호남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금호그룹 주식 갖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이 지역경제 회생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 강운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재정비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0일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충청권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인 대혼란과 위기로 번질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은 주요 권역별 핵심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자립도 ▲SOC 상태 ▲GRDP 규모 등 4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5단계 유형으로 나눠 세제와 분양가, 공장 설비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되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형석 "세종시 수정안 저항 나서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 전 비서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과 견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시 감사 예산절감

### 3년간 191억 감액·회수

광주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및 공사현장 감사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0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공사 및 5개 구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공사현장 감사 등을 통해 191억6천만 원의 예산을 감액·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 업무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공사의 공법을 개선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지도 감사'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어등산관광단지 조성공사 경계부에 설치키로 한 길이 237m, 높이 3~7.2m의 옹벽구조를 개선, 높이를 1.2m로 낮추는 대신 비탈사면으로 시공토록 공법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케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빛고을 문화관·북구 노인타운 공연장 내달 오픈

### 광주 공연장 부족 해소될 듯

광주지역 문화·예술계의 만성적인 공연장 부족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0일, 빛고을 시민문화관과 북구 노인복지타운에 각각 715석과 102석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다음달 말 개관한다고 밝혔다.

낡은 구동체육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되는 '빛고을 시민문화관'은 문화·국악교실 등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어 공연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대 상인들과 주민들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 내 공연장이 속히 오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구 효령동 '북구 노인복지타운' 내 공연장도 노인층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앞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에 1천800석 규모의 대극장, 557석 규모의 중극장, 248석 규모의 소극장, 350석 규모의 어린이 공연장 등 4개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연장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됨은 물론 공연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